

흑석12구역 신속통합기획 ‘불발’ 원룸·상가 밀집지역 제외 가능성

주민 재개발 반대동의율 24% 넘겨
재개발추진위, 주민 설득·구역 조정
“1500~1700가구로 줄어든 수 있어”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앞에서 2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던 재개발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흑석뉴타운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추진지로 주목받았던 흑석동 186-25 일대(가칭 흑석12구역)의 반대동의율이 24%를 넘어서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재개발추진위는 반대가 많은 상가·원룸 밀집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동작구청과 서울시,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흑석동 186-25 일대의 주민반대동의율이 24%를 넘어서면서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반대동의율이 20%를 넘으면 후보지 추천 여부를 재검토하고, 25% 이상이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흑석동 186-25 일대의 재개발 추진 면적은 약 8만8575㎡로 추진위가 당초 2077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구상하면서 흑석뉴타운 일대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후보지로 기대를 모았다.

이 지역은 과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들어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된 곳이다. 인근 흑석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개발 기대감도 커졌다. 대표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4월 31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7월에는 전용 59㎡가 26억5000만원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6-25번지 일대(가칭 흑석12구역)의 저층 주택가. 20일 오전, 노후 주택과 다세대주택 뒤로 흑석뉴타운 대표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이 보인다. /이현진 기자

에 손바뀜했다. 재개발 추진지역에 있는 명수대삼익빌라에서는 올해 7월 전용면적 224.14㎡가 21억원에 거래된 데 이어 8월에는 비슷한 면적인 전용 217.58㎡가 27억원에 손바뀜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다. 추진위가 파악한 토지등소유자는 652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반대동의율 25%에 해당하는 인원은 163명이다. 현재 반대동의율이 24%를 넘어선 만큼 추가로 1~6명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면 25%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반대동의율은 구청이 적용하는 토지등소유자 수와 유효 반대동의서 집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상정 보류는 추진위 측의 요청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흑석12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반대동의율이 20%를 넘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에는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 신청 때는 반대 주민 설득과 일부 구역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역 조정 대상으로는 반대가 많은 외

곽의 상가·원룸 밀집지역이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당초 남아 있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해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고, 구청과 서울시 입장에서라도 힘들더라도 다 같이 가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역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이 빠지면 당초 2000가구를 웃돌던 계획이 1500~17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와 원룸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굳이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는 것이 유리하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오르고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젊은 투자자도 있었다”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리한 매수는 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LS그룹, 주요 계열사 실적 신기록 행진

해외 전력 인프라 사업 중심 성장세
LS일렉트릭, 지난해 연간 실적 돌파



연간 실적을 모두 웃돌았다.

LSCUS는 LS전선과 협력해 미국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를 납품하고

LS그룹(회장 구자은·사진)의 해외 전력 인프라 사업 확대가 계열사들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 등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전력기기·케이블 공급 증가로 연결되면서 주요 계열사들이 분기 최대 실적을 내거나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기에 넘어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8778억원, 영업이익 23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54.4%, 131.7% 증가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북미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과 초고압 변압기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북미 매출은 약 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25% 늘었다. 제품별 매출은 배전반이 전년 동기보다 120%, 초고압 변압기는 106%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낮은 양산형 배전기기 매출도 32% 늘며 수익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 4분기부터 100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이어갔다.

전선 계열사인 가온전선도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향 배전케이블 수출과 현지 자회사 LSCUS의 공급이 늘면서 3분기 매출은 9865억원, 영업이익은 5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1.9%, 99.1%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 2조 6194억원과 영업이익 1160억원은 지난해

있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단지용 케이블 공급도 늘어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 부문의 실적 호조는 유럽과 동남아에서도 이어졌다. LS에코에너지는 유럽·북미향 전력케이블 수출과 아시아 지역 버스덕트 공급 확대에 힘입어 3분기 매출 3515억원, 영업이익 2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51.0%, 50.2%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 9873억원과 영업이익 675억원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케이블 시공 사업을 하는 LS마린솔루션도 해외 프로젝트 확대와 공정 효율화로 수익성을 높였다. 3분기 매출은 7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5%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172억원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대만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매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 통신케이블 설치 사업이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자회사 LS빌드윈도 아시아·중동 공사의 시공 효율을 높였다. 증설 작업으로 매출 공백이 발생했던 포설선 GL2030은 이달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부터 본격 투입됐다. 연결 기준 수주잔고는 약 82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약 3.4배에 달한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삼바 ‘SBE303’, 美 FDA 패스트 트랙 지정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독자 신약 연구개발 역량 입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독자 신약 개발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입증하며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 첫 신약 파이프라인이 미국 규제 당국의 신속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개발 초기부터 위험 관리와 신속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SBE303’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패스트 트랙’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SBE303은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 ‘넥틴-4’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다. 이번 패스트 트랙 지정은 기존 넥틴-4 표적 치료제 투여 이력이 있는 국소 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SBE303의 글로벌 임상 및 상업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두산에너지빌리티, SMR 기자재 사업 키운다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사별 협력 현황·전략 밝혀
이득규 수석 “글로벌 수요 적극 추수”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에서 핵심 기자재 제작 사업을 확대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의 국가 단위 사업 구조와 달리 SMR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주요 설비의 공장 제작 비중도 커지면서 다양한 원자로 설계에 대응하는 기자재 제작·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득규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자력BG 수석은 지난 20일 산업교육연구소 주관 ‘SMR 주요 동향 및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사업 전략’ 세미나에서 주요 SMR 개발사별 협력 현황과 제작 전략을 밝혔다.

이 수석은 기존 대형 원전과 SMR의 사업 구조를 각각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에 비유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자국의 설계·제작·건설·운영 기업들이 협력하는 국가 단위 사업 구조였다면, SMR은 원자로 설계 전문기업이 국경을 넘어 기자재 제작사·건설사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다. 원자로 설계 전문기업들이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문 제작사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에 대응해 미국 주요 SMR 개발사와 핵심 기자재 공급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뉴스케일과 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제작성 검토를 거쳐 초도 소제 제작에 착수했다. 뉴스케일과 위가 참여하는 미국 테네시밸리전력청(TVA)·엔트라원에너지의 6GW 규모 SMR 건설 협력사업과 최종투자결정(FID)이 승인된 루마니아 로파워(RoPower) 프로젝트에 맞춰 후속 기자재 발주에 대응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는 원자로 16기분의 핵심 소재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예약계약을 체결했다. 엑스에너지가 추진 중인 미국 다우(Dow) 화학공장 대상 80MW급 고온 가스 4기 배치 사업과 아마존과의 5GW 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맞춰 후속 기자재 제작을 준비 중이다.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추진하는 345MW급 나트륨냉각고속로(SFR) 사업에서도 초도 기자재 3개 품목의 제작

계약을 맺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건설허가를 취득했으며, 테라파워는 메타와 최대 8기의 원자로 건설 협력을 발표하는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주도하는 혁신형 SMR(i-SMR)의 설계 구체화에 참여 중이다. 170MW급 원자로 4기로 구성되는 i-SMR은 오는 2028년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SMR 기자재 제작은 설비 일체화로 인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일체형 가압경수로는 원자로 내부에 증기발생기 등 주요 설비가 집약돼 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나선형 증기발생기 튜브 제작, 고온·부식 대응 소재 적용, 협소한 공간 내 기기 배치 등 정밀한 제작 및 조립 기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수석은 “SMR 기자재를 전량 자체 제작하기보다 협력사와 공동 제작 및 외주 생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자체 인프라와 공급망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SMR 기자재 수요를 적극 추수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metro

“기술 주도 시장 조정시 타격 입을 수 있어”

〉 1면 ‘반도체 상승 베타팅…’서 계속

반도체지수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탓이다. 9일 만에 반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0일(현지시간) 0.29%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 18일까지 8거래일 동안 15.7% 떨어져 2008년 10월 이후 최저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의 투자플랫폼 AJ벨의 댄 코츠워스 시장총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매우 경기 순환적인데 일부 투

자자들은 이를 잊고 있다”며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주가 크게 노출된 상황에서 기술 주도 시장 조정이 일어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외 주식시장을 넘나들며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해 온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내 시장을 떠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